

여론조사꽃

제5차

정례여론조사 ARS + WEB

보고서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꽃

제5차 정례여론조사 ARS + WEB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인덱스, 체감지표, 국정현안

ARS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인덱스 윤덱스: 대통령 개인 호감도

체감지표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자세

국정현안 국민의힘 갈등 요인

이준석의 신당 창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

WEB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체감지표 현재와 대선 당시의 윤 대통령 이미지

주변의 윤 지지층 지지 변화

인덱스 SI지수

정부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론조사 꽃, 9월의 두번째 리포트는
ARS조사와 Web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기본 조사(ARS:4차와 5차 비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를 담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인덱스, 체감지표, 국정현안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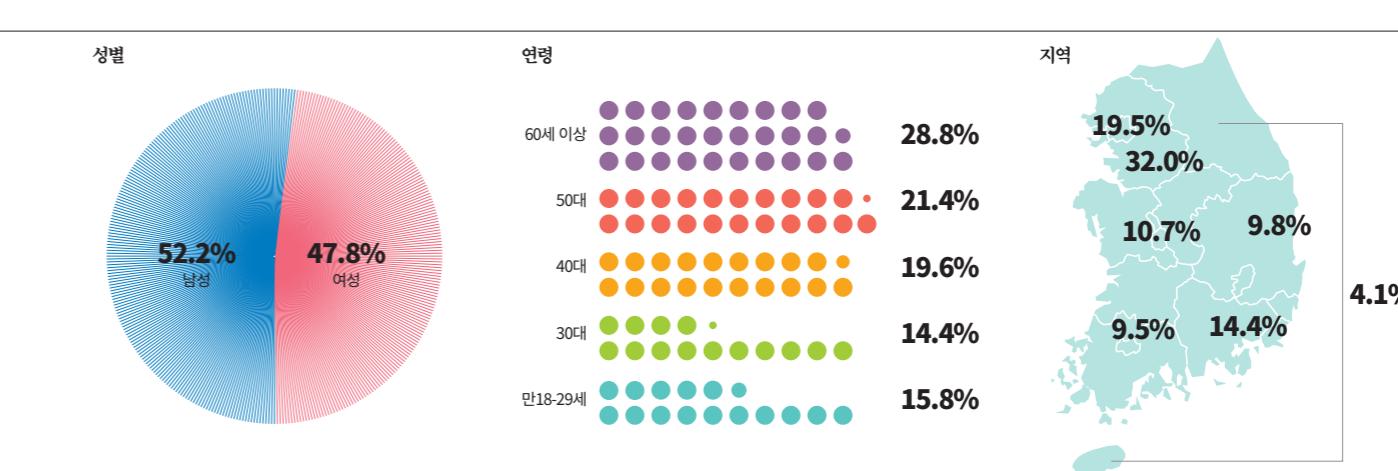
인덱스 윤덱스: 대통령 개인 호감도

체감지표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자세

국정현안 국민의힘 갈등 요인

이준석의 신당 창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



조사개요

조사방법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9명
표집방법	2022년 8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3.3% [총 통화지도 30,294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09월 02일 12시 00분~20시 30분 2022년 09월 03일 12시 00분~21시 50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9	100.0%	1009	100.0%	1.00
성별					
남성	527	52.2	500	49.6	0.95
여성	482	47.8	509	50.4	1.06
연령					
만18-29세	159	15.8	172	17.0	1.08
30대	145	14.4	151	15.0	1.04
40대	198	19.6	186	18.4	0.94
50대	216	21.4	196	19.4	0.91
60세 이상	291	28.8	304	30.1	1.04
지역					
서울	197	19.5	190	18.8	0.96
인천경기	323	32.0	320	31.7	0.99
대전세종충청	108	10.7	107	10.6	0.99
광주전라	96	9.5	97	9.6	1.01
대구경북	99	9.8	99	9.8	1.00
부산울산경남	145	14.4	152	15.1	1.05
경원제주	41	4.1	44	4.4	1.07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값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 경우, 이상치(c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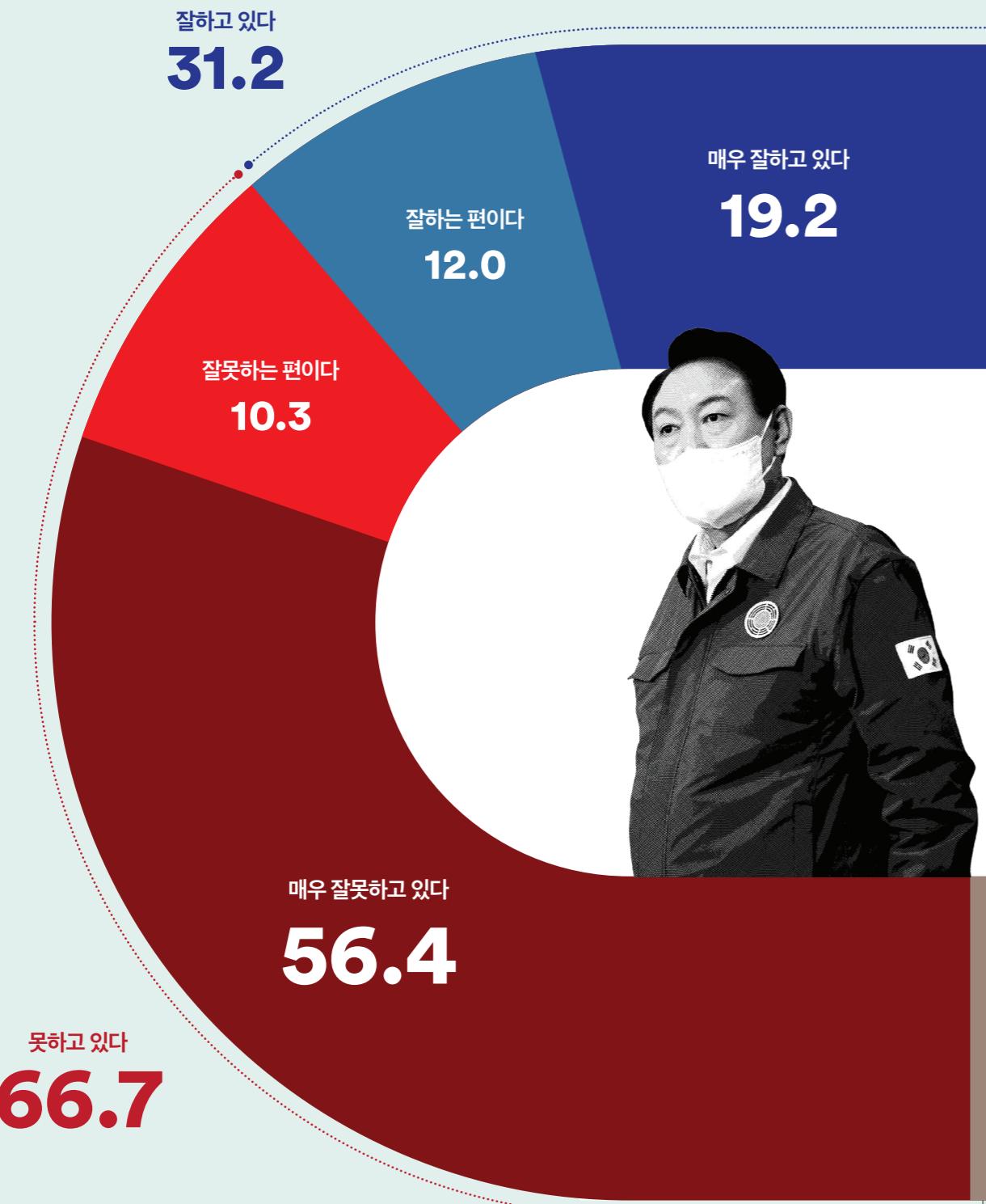
결값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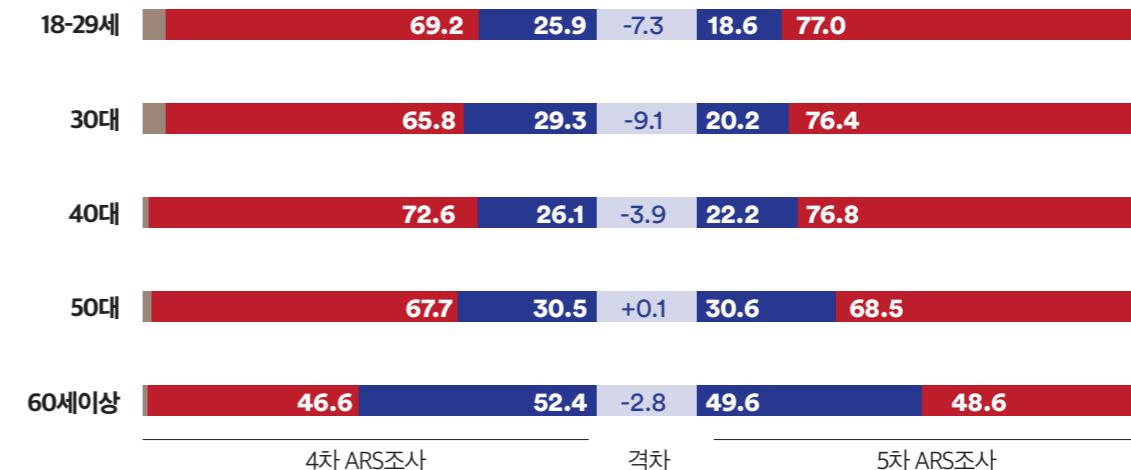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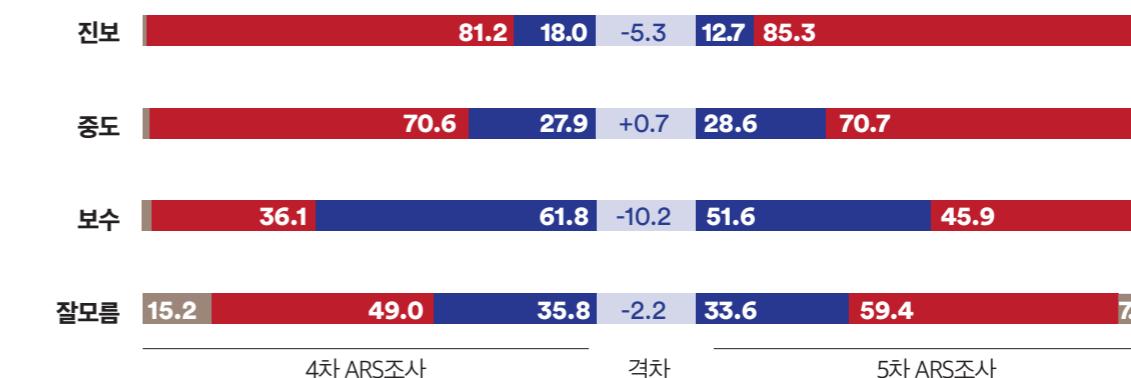
지난 주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4.1%p 감소, 부정평가 4.4%p 상승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부정평가 우세

지난주 긍정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20대·30대에서도 부정평가 증가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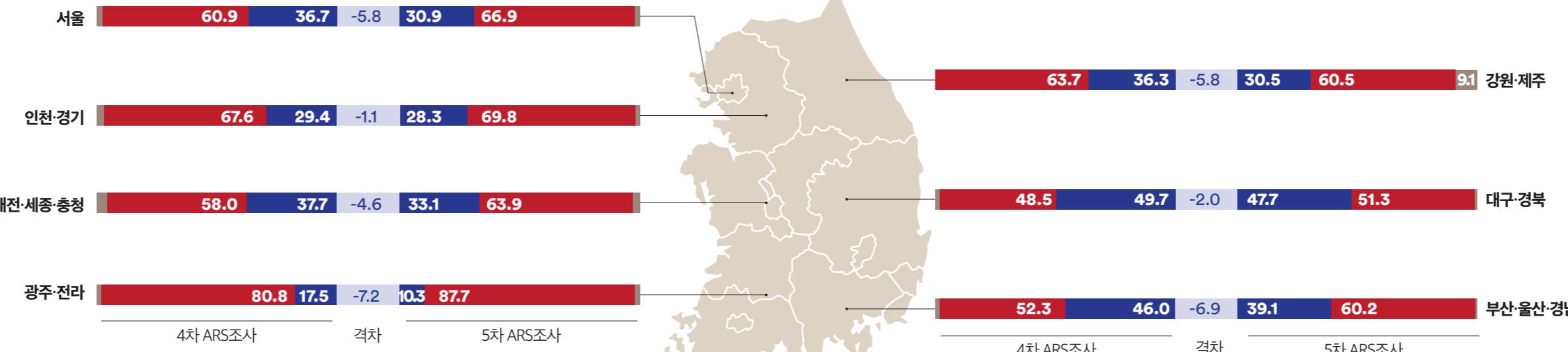
격차: 4차 ARS조사와 5차 ARS조사의 차이 (증가: +, 감소: -)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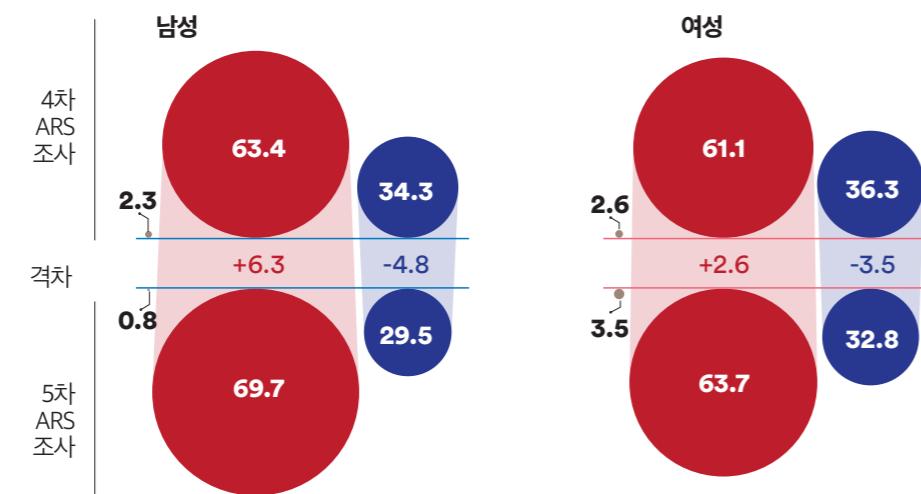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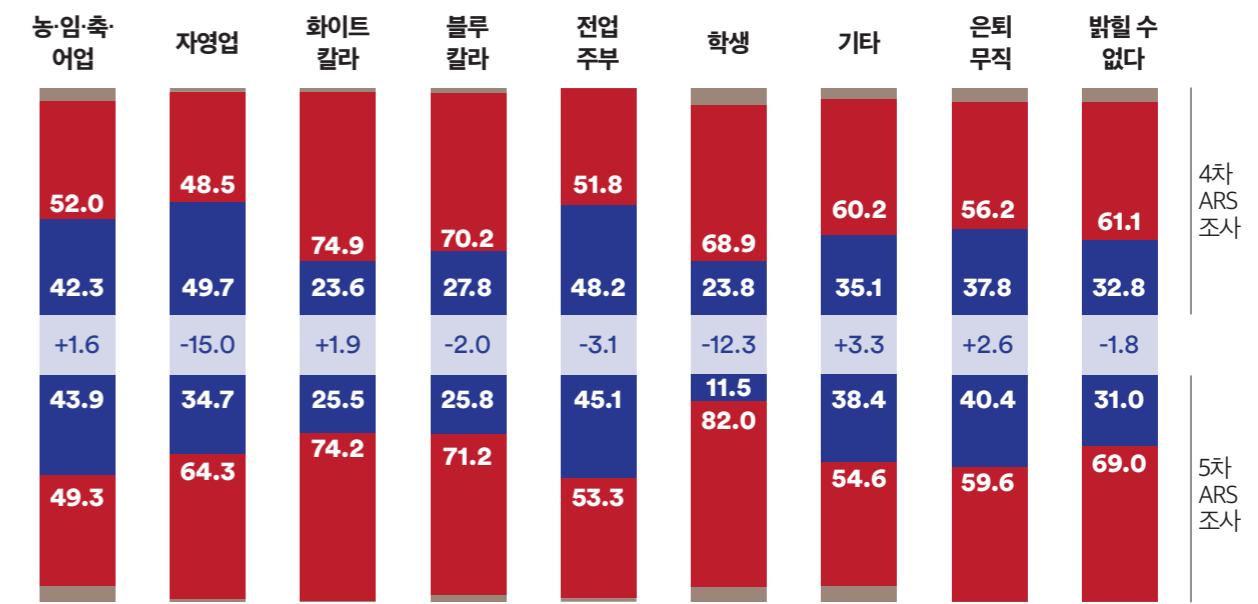
권역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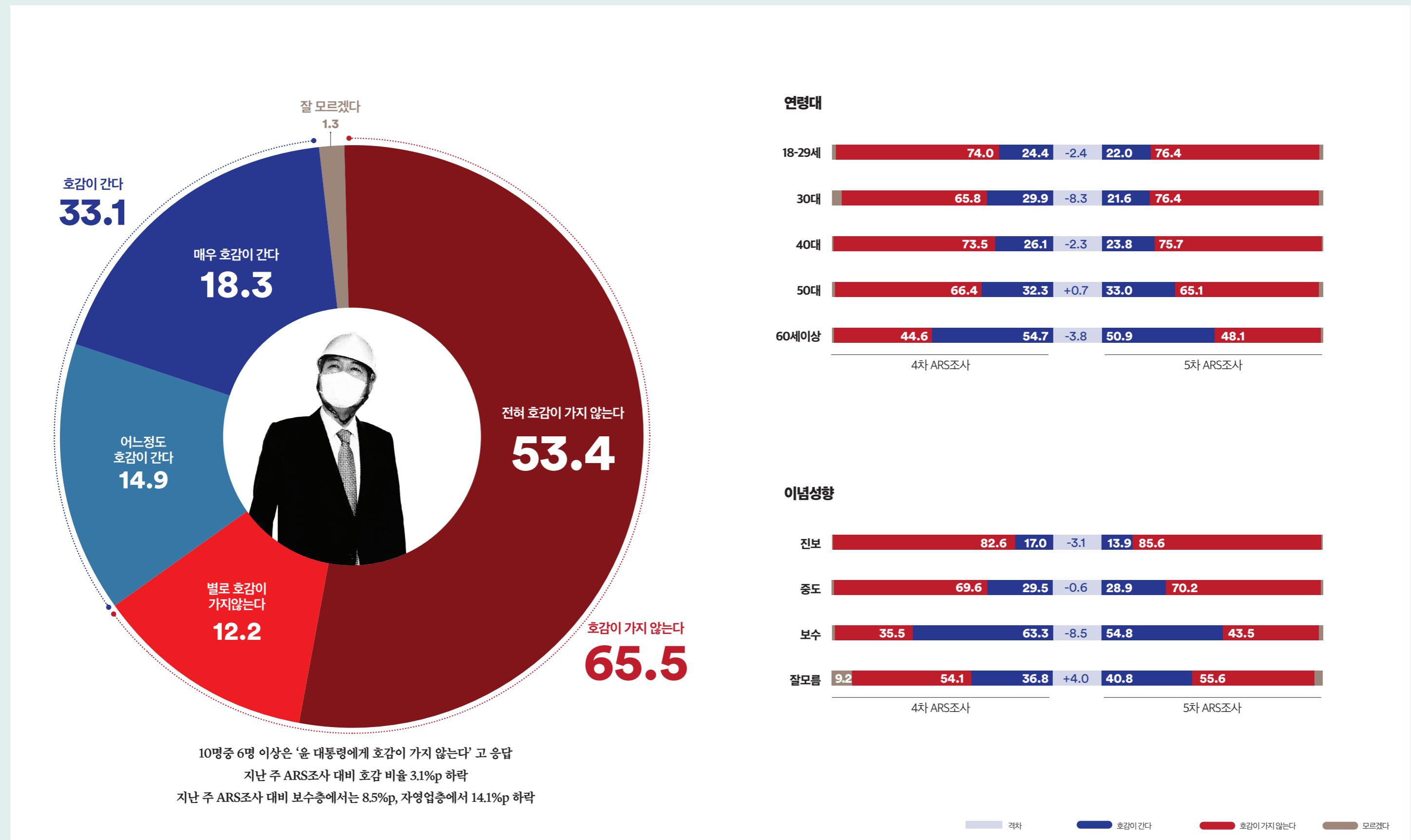
직업군별



인덱스: 윤데스

대통령 개인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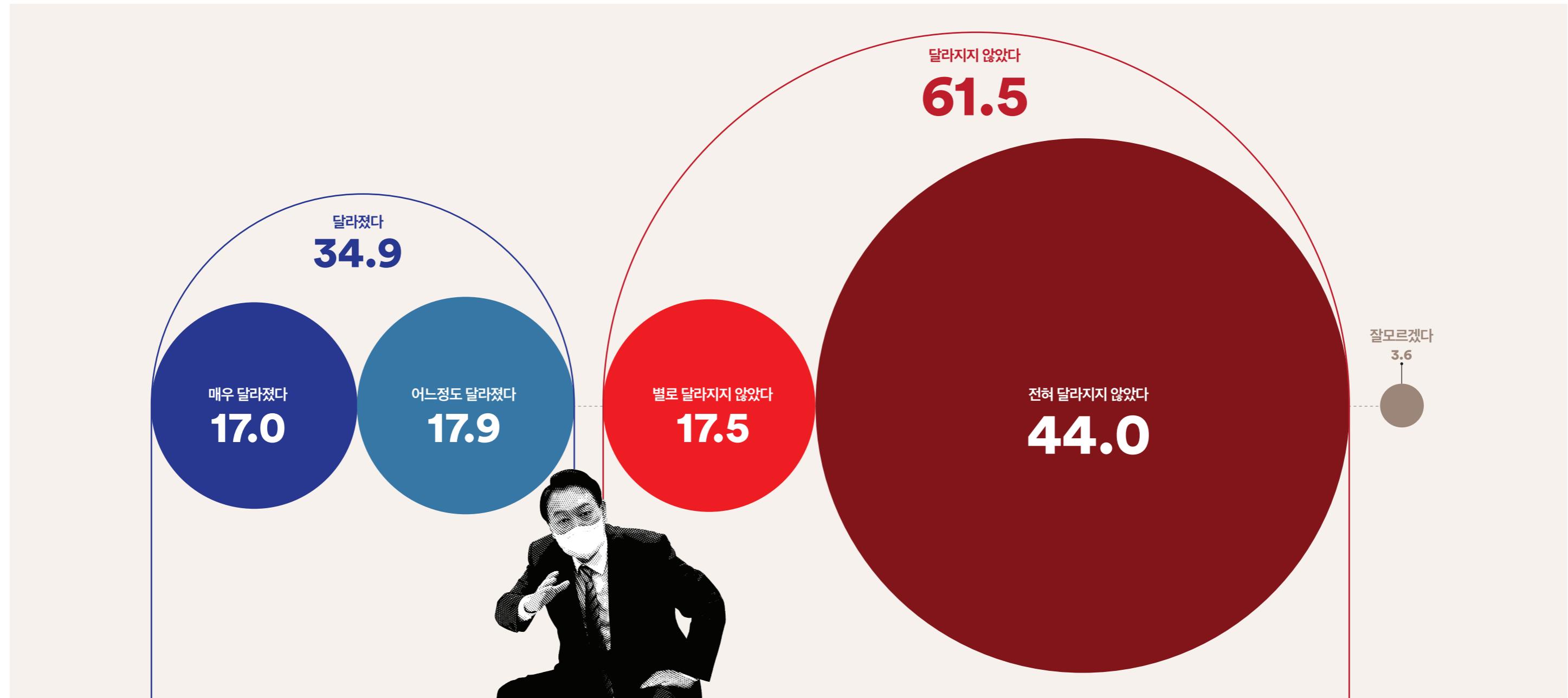
Q. 윤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체감지표

대통령의 100일, 태도의 변화

Q.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중 6명 이상은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경제생활인구)에서 '변하지 않았다' 비율 우세

진보층과 중도층은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는 '변했다'는 응답이 우세함

이념성향	진보	17.1	79.6
	중도	31.2	66.6
	보수	54.4	41.5
잘모름	42.5	49.1	8.4

■ 달라졌다 ■ 달라지지 않았다 ■ 모르겠다

국정현안

국민의힘 갈등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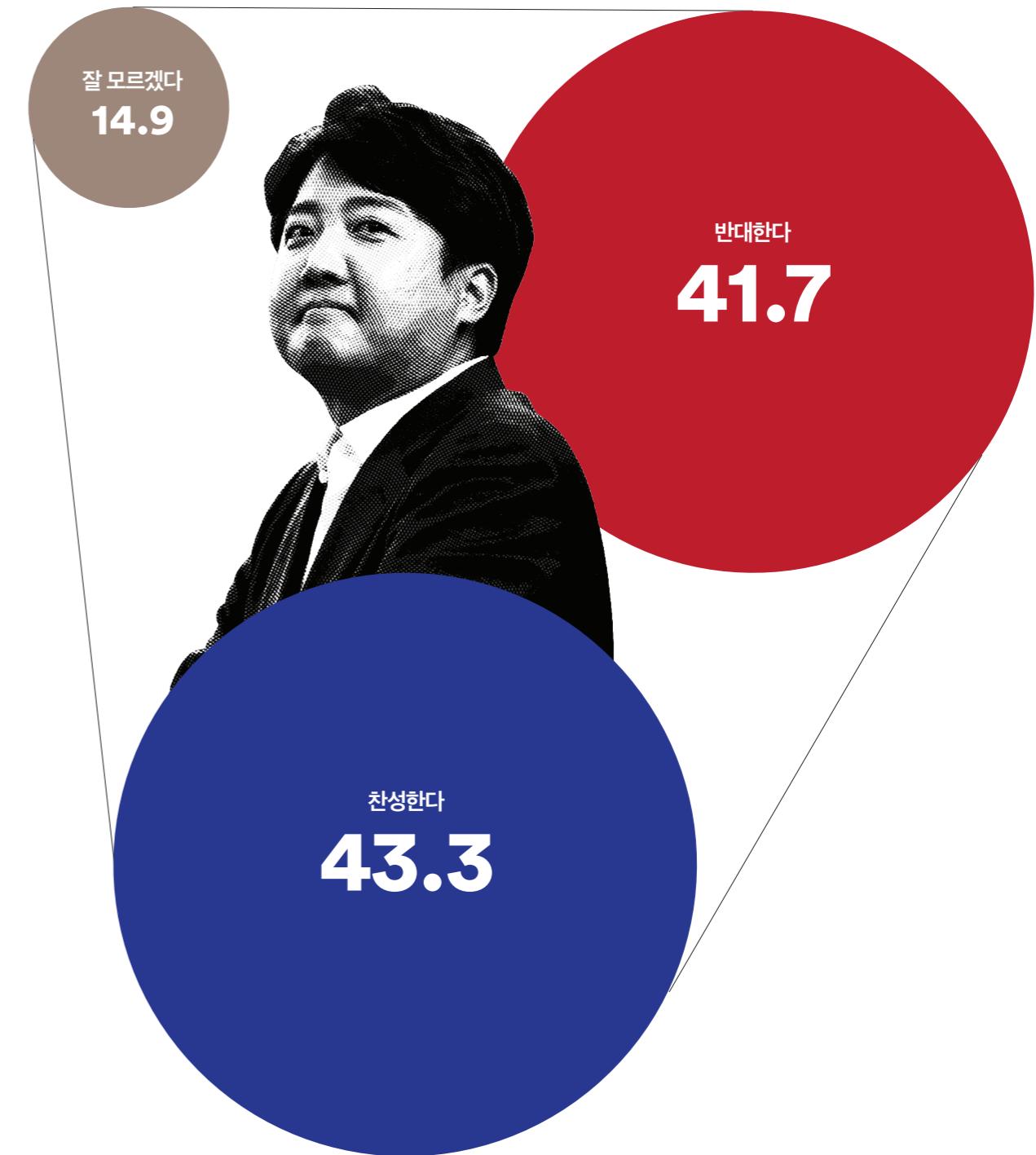
Q.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현안

이준석 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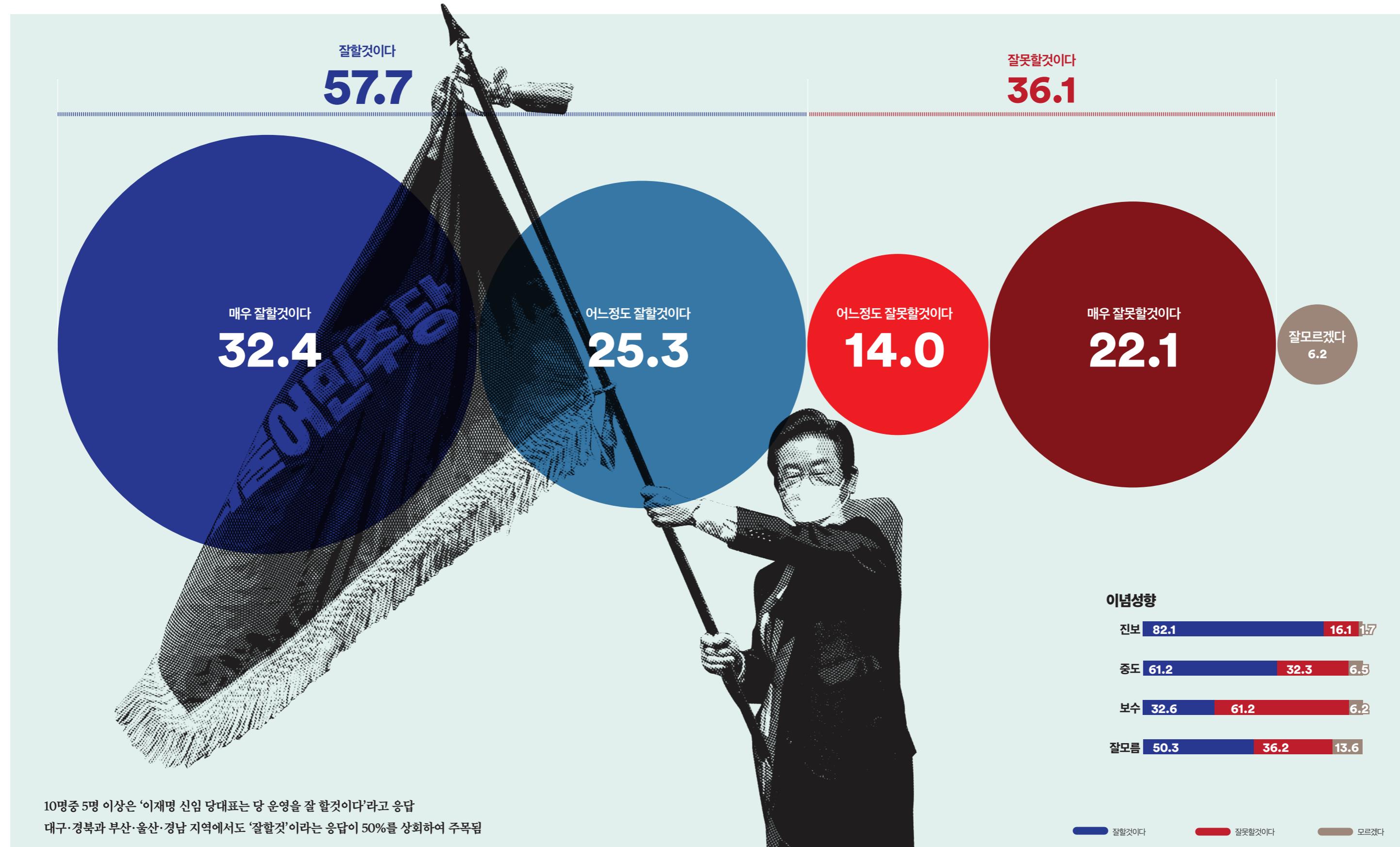
Q. 이준석 전 대표의 전면전 선포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분당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현안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Q. 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운영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WEB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체감지표, 인덱스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체감지표 현재와 대선 당시의 윤 대통령 이미지
주변의 윤 지지층 지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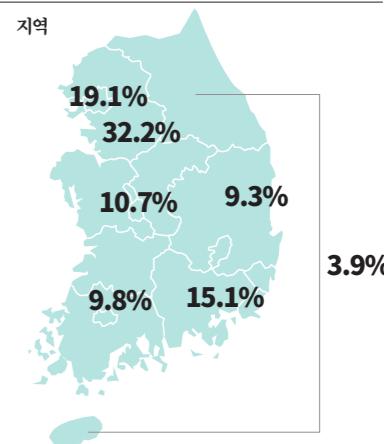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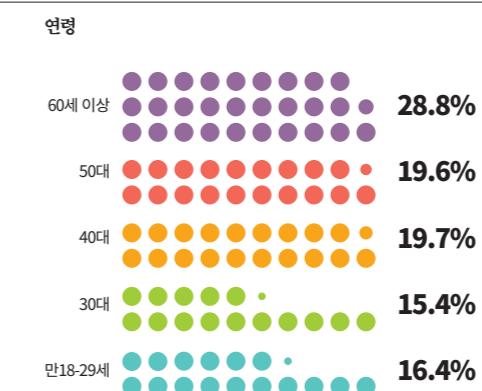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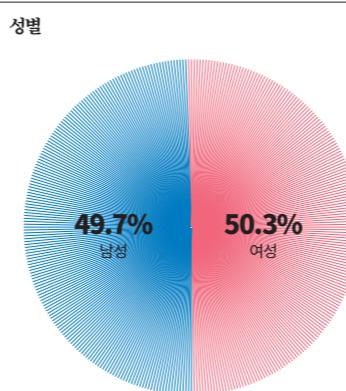
인덱스 SI지수

정부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사개요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여론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59명
표집방법	2022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68.8% (온라인 가입 패널 중 12,057명에 발송) 총 1,539명 연결(중도이탈 480명, 완료응답 1,059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7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08월 31일(수)~ 09월 01일(목)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59	100.0%	1059	100.0%	1.00
성별	남성	526	49.7	526	49.7
	여성	533	50.3	533	50.3
연령	만18-29세	174	16.4	180	17.0
	30대	163	15.4	160	15.1
	40대	209	19.7	195	18.4
	50대	208	19.6	206	19.5
	60세이상	305	28.8	318	30.0
지역	서울	202	19.1	200	18.9
	인천경기	341	32.2	336	31.7
	대전세종충청	113	10.7	116	11.0
	광주전라	104	9.8	102	9.6
	대구경북	98	9.3	102	9.6
	부산울산경남	160	15.1	159	15.0
	강원제주	41	3.9	44	4.2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값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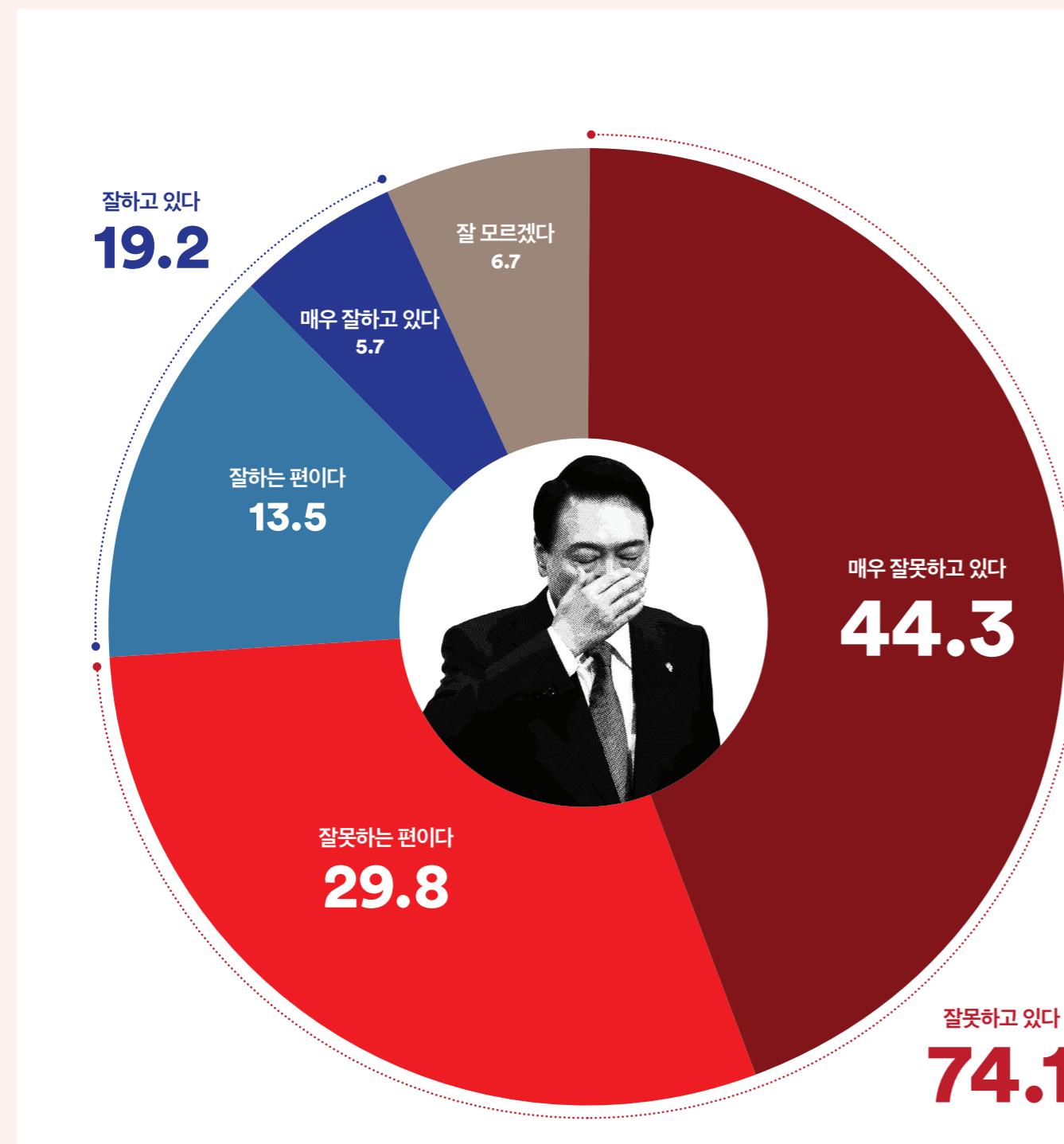
결값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중 7명은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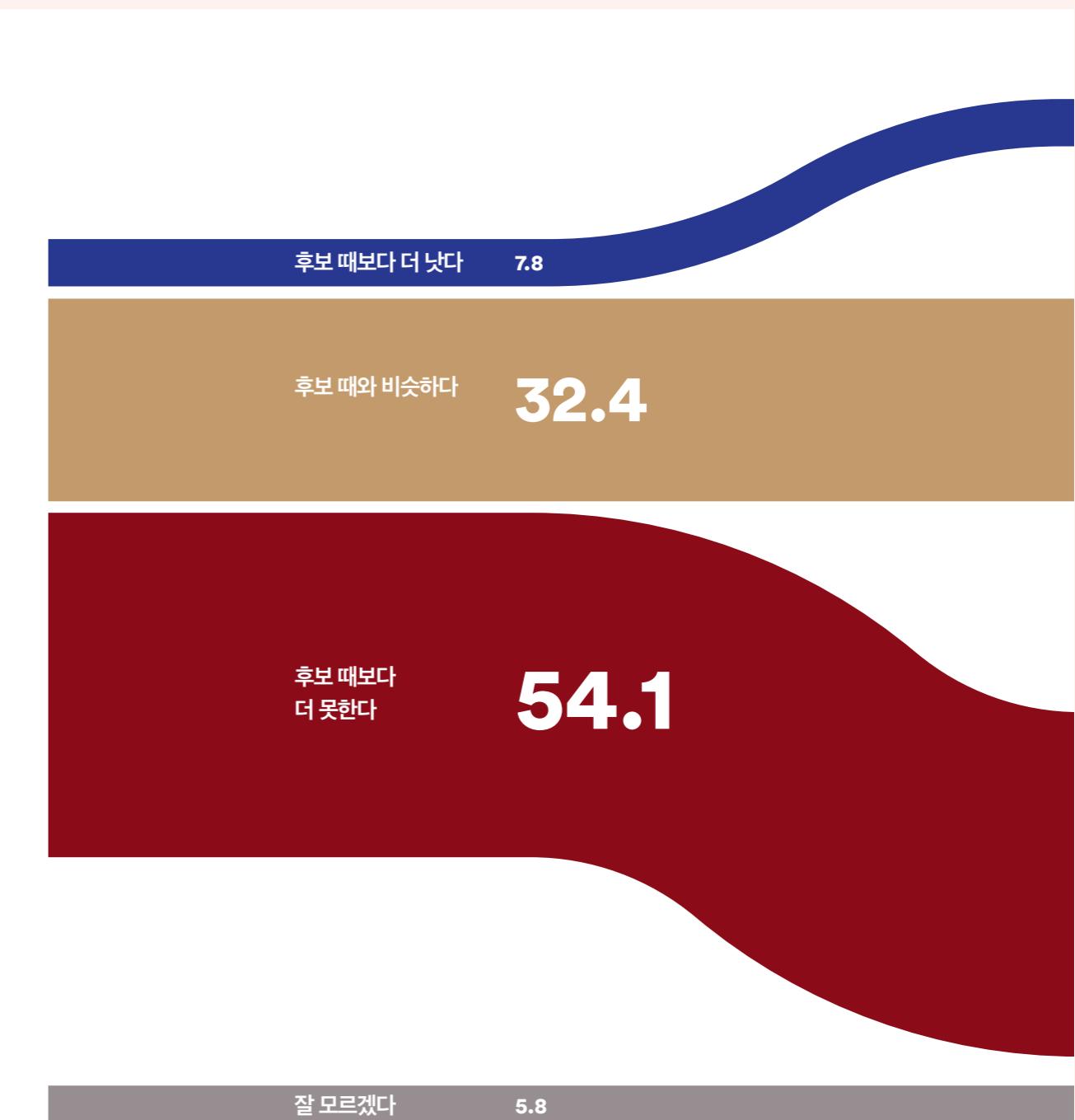
남성의 긍정평가 비율이 여성대비 소폭 높게 나타남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 비율이 21.8% 높음

체감지표

윤 대통령의 이미지 변화

Q.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신다면 이미지에 변화가 있습니까?



10명중 5명 이상은 '윤 대통령은 후보 때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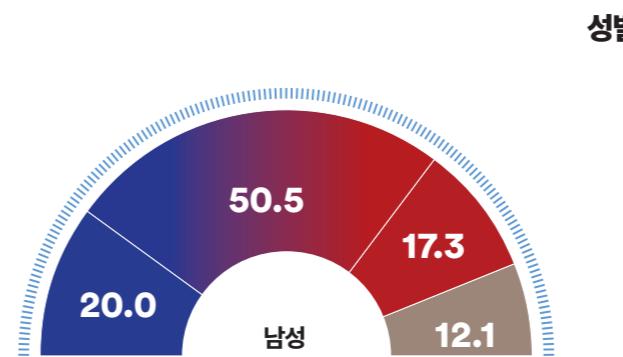
체감지표

내가 느끼는 주변의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세 변화

Q.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주변 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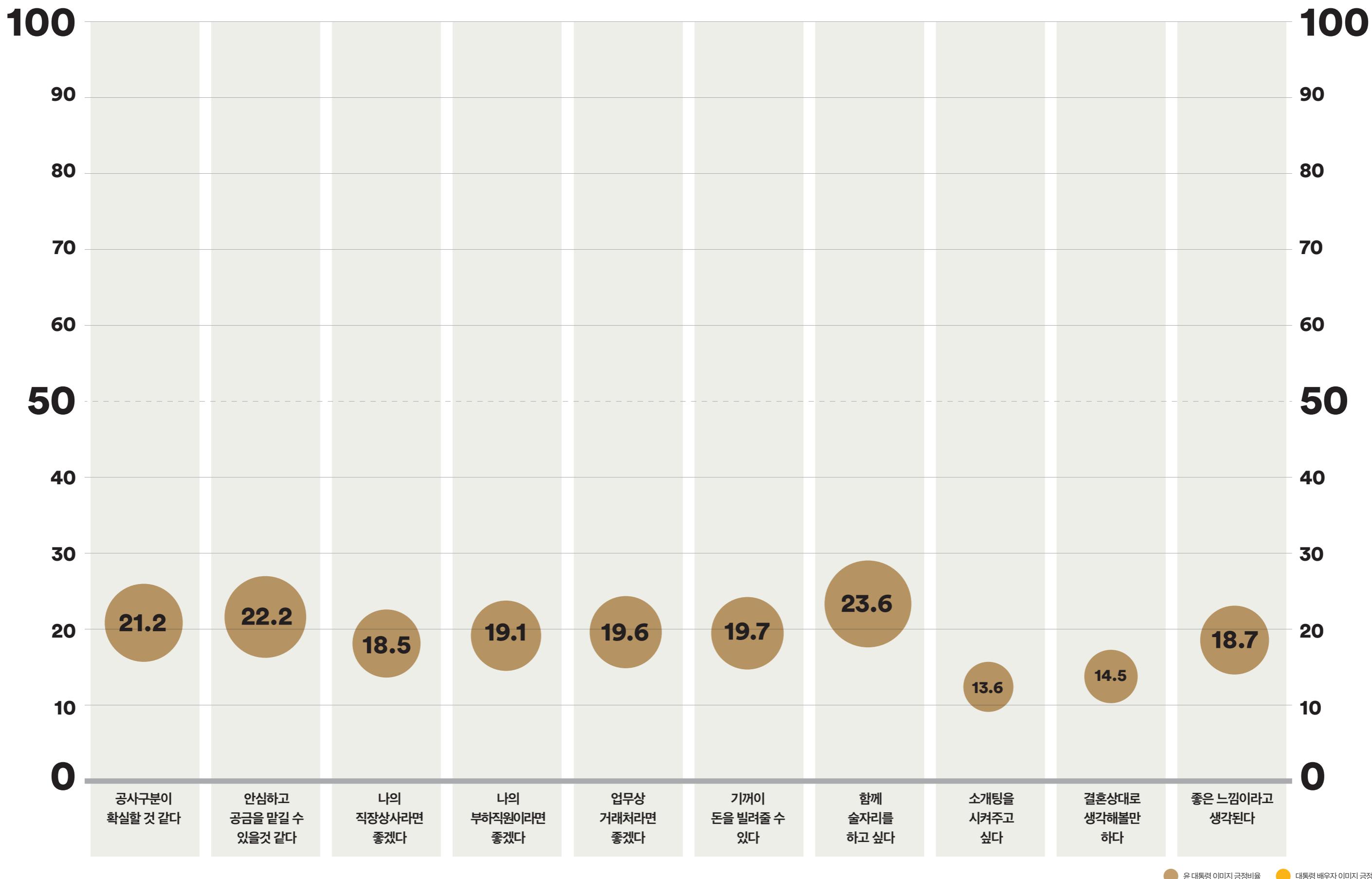
10명중 5명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고 응답
보수층에서도 '지지철회했다'는 응답이 53.2%



■ 계속 지지한다 ■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 ■ 지지자가 없었다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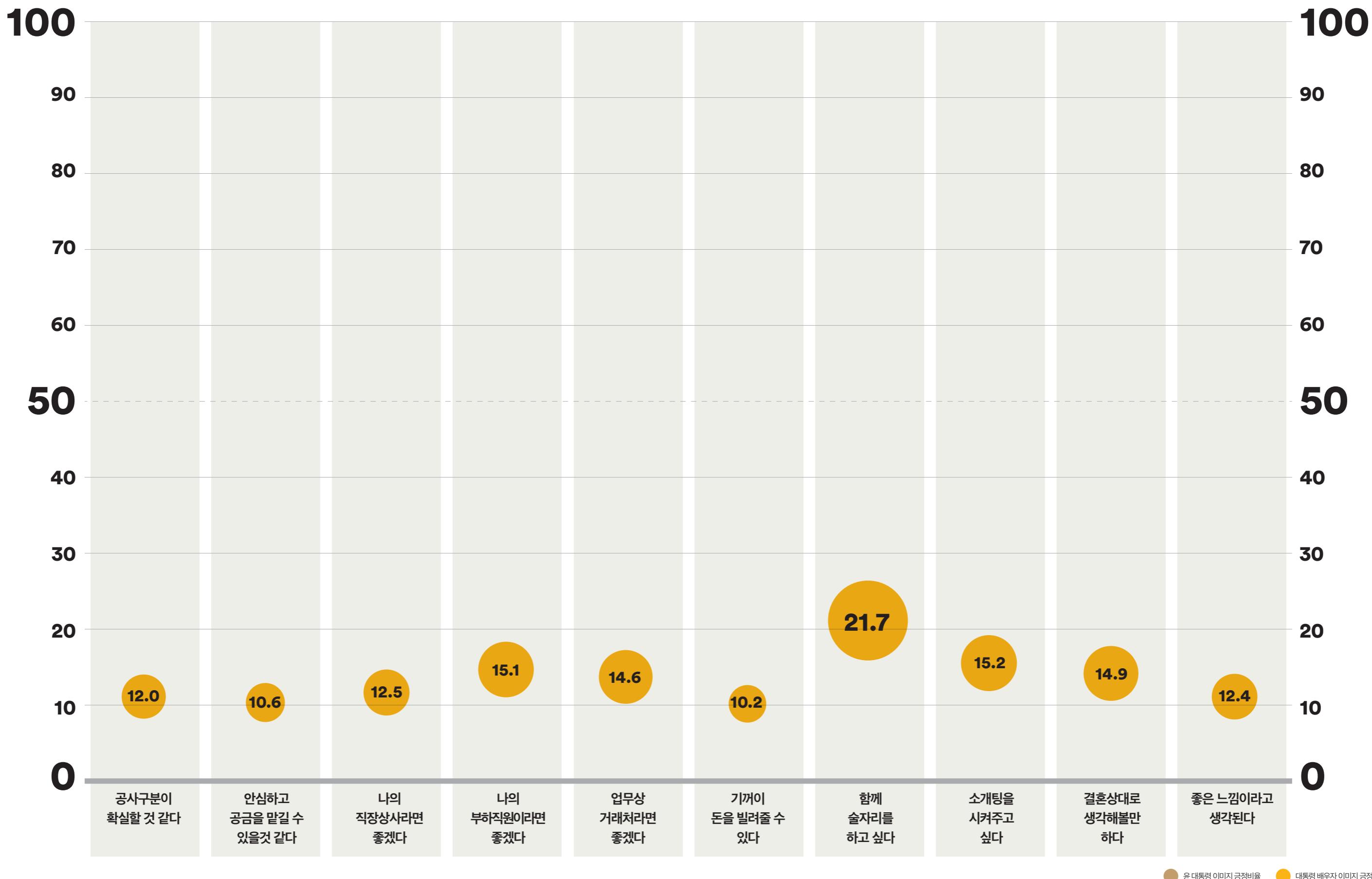
인덱스: SI지수

윤 대통령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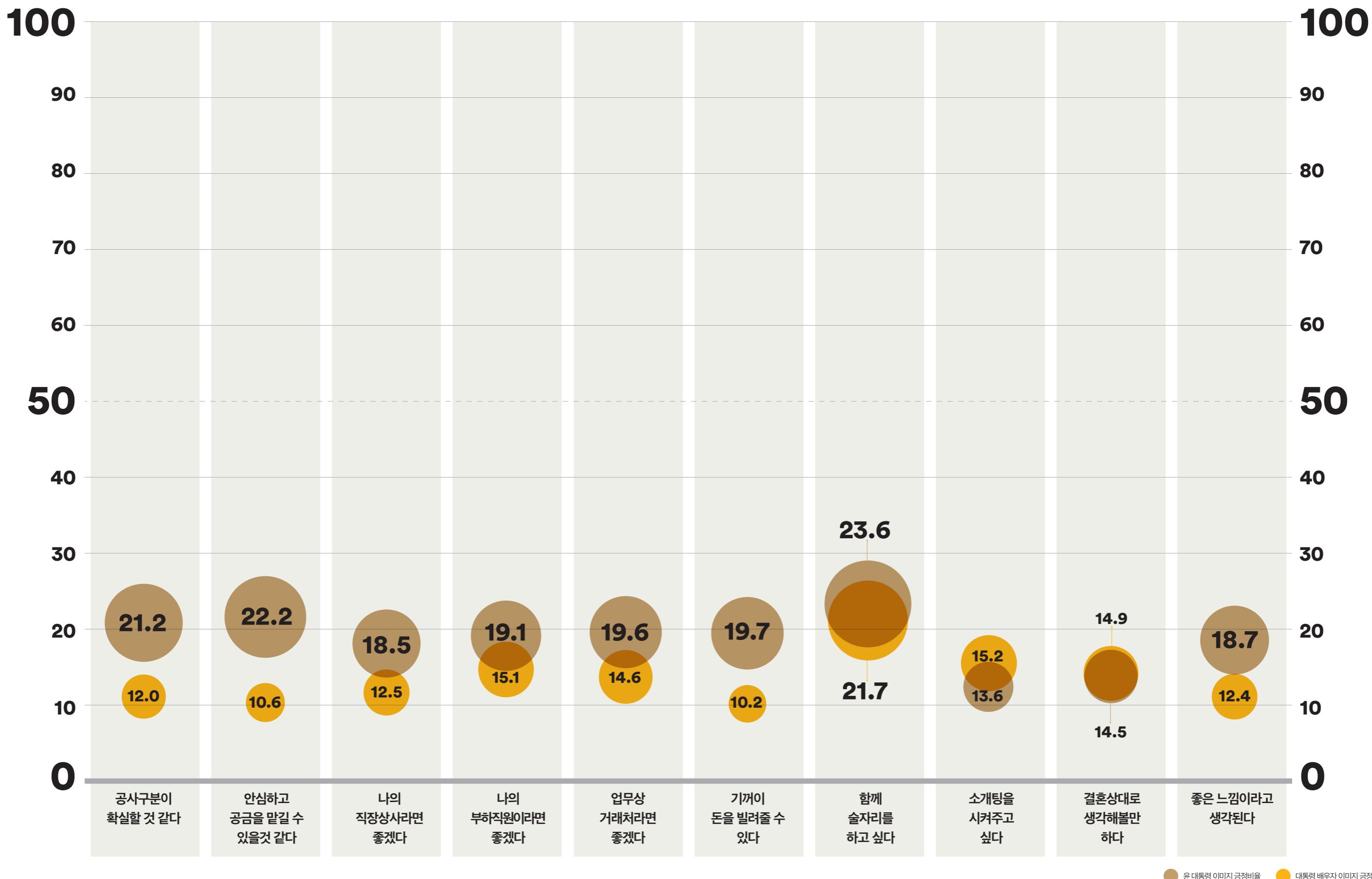
인덱스: SI지수

대통령 배우자의 이미지



인덱스: SI지수

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이미지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영상 시청후 느껴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17.4%), 부정(65.3)으로 나타남
서울 및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20%이상,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35.7%
여성보다 남성의 긍정평가가 4.8%p 높음

傲 거만할 오 오만불손

“건방지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거들먹거린다”, “권위적”, “교만하다”

“시건방지다”, “상대를무시하고있음”, “건방진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내위에 아무도없다”, “너무 대충대충 말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크다”

“권력남용”, “안하무인”, “인격파탄”, “주먹을부르는태도”,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시각”

“기고만장”, “쓰레기 인격”, “오만불손” “버르장머리가 없다”, “교만하다”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오만함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만불손하고 건방지며 보고있자니 분노가 치민다”

“굉장히 사람을 멸시하고,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

“본인의 권리 위치를 거들먹거리며 예의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고있음”

缺 모자랄 결

“자질부족”, “능력부족”, “미성숙”

“기분이 안된 사람”, “공감능력 부족”

“장관이라는게 창피하다”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는 미성숙한 사람”

“질문을 받는 자리인만큼
어떤 답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임을
무시하는 사람”

避 피할 피

“언변이 유려하다”, “잘 넘어간다”,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느낌이 든다”

“사실관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회피한다”

“말꼬리를 잡으며 교묘하게 본질을 피해가는 듯 보인다”, “듣고싶은 말만 듣고자함”

“말장난만 하는 느낌”, “답변을 하기싫어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無

없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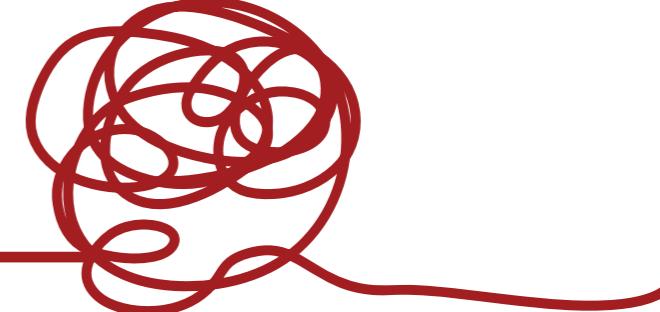
“예의없다”, “무책임하다”, “버릇없다”, “안하무인”, “무례하다”, “무성의”

“싸가지가 없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후지다”, “공사 구분을 못한다”

“뻔뻔하다”, “무매너”, “신뢰감이 없다”, “공감능력 부족”

激

격할 격



“감정이 앞서는 사람”, “인정을 못한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례한 면이 있다”

“성깔있어 보인다”, “평정심을 잃고 있다”, “불쾌하다”, “신경질적이다”

獨

홀로 독



“독선적”, “편협하다”, “자기중심적”, “편파적”, “독단적”,

“태도와 생각이 자기 위주”, “자기만 옳다”, “교만하고 재수없다”

“건방지고 자신이 법 위에 있는 자 같다”, “나만 옳다”, “막나간다”

“고집불통”, “남과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안하무인”, “아집과 불통”

鐵面

쇠 철, 낮 면



“뻔뻔하다”, “핸드폰 비번도 안가는 범죄자”, “부끄러운줄 모른다”

“이중인격자”, “권모술수”, “비열한 인간”, “부패한 권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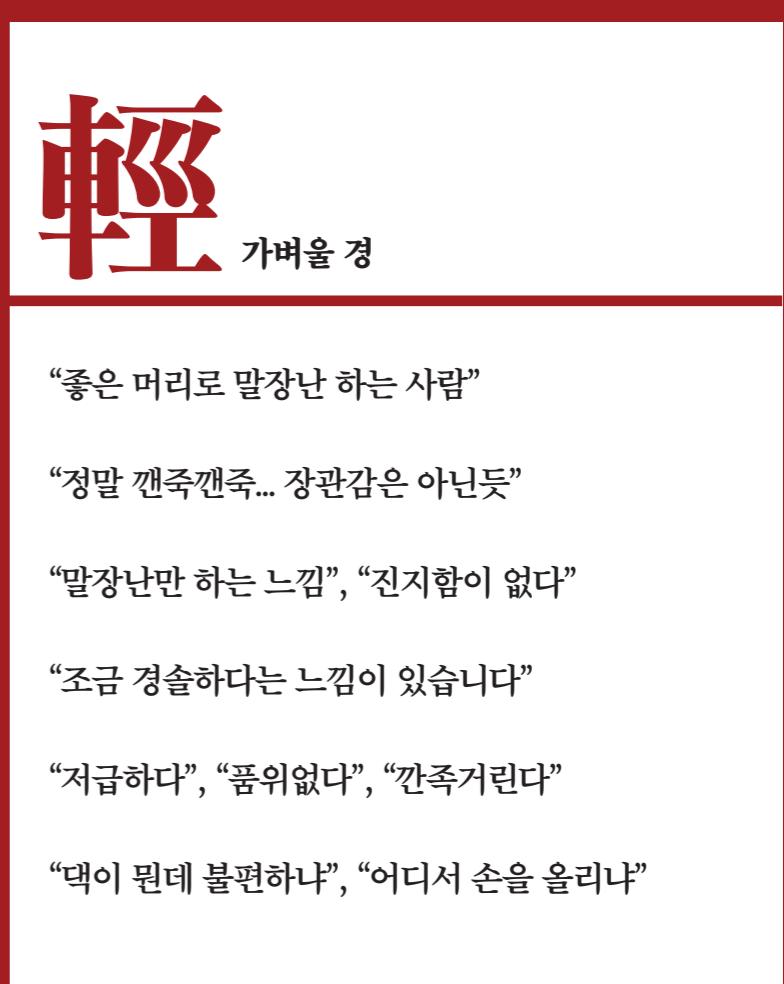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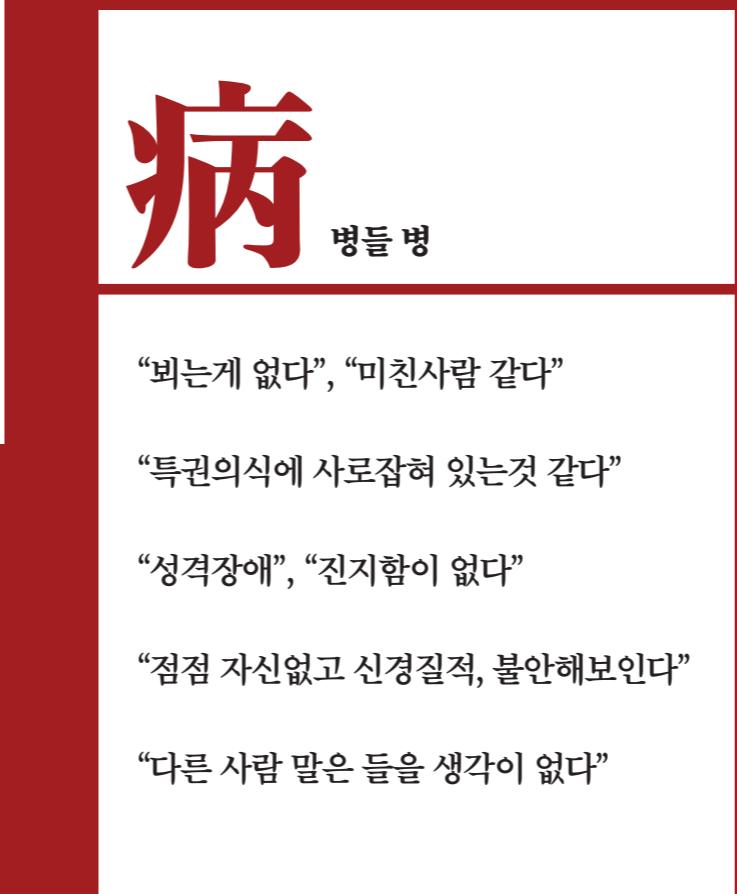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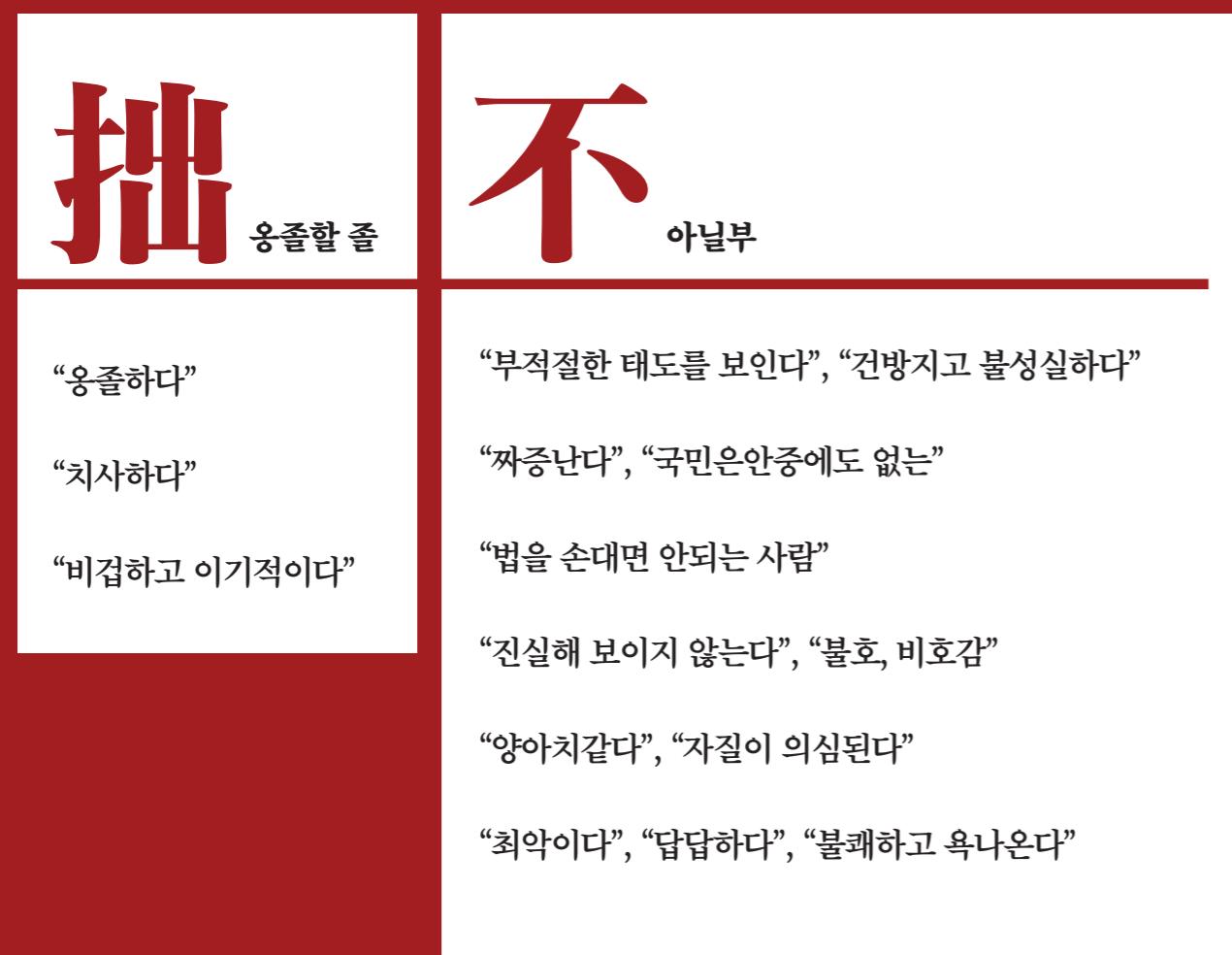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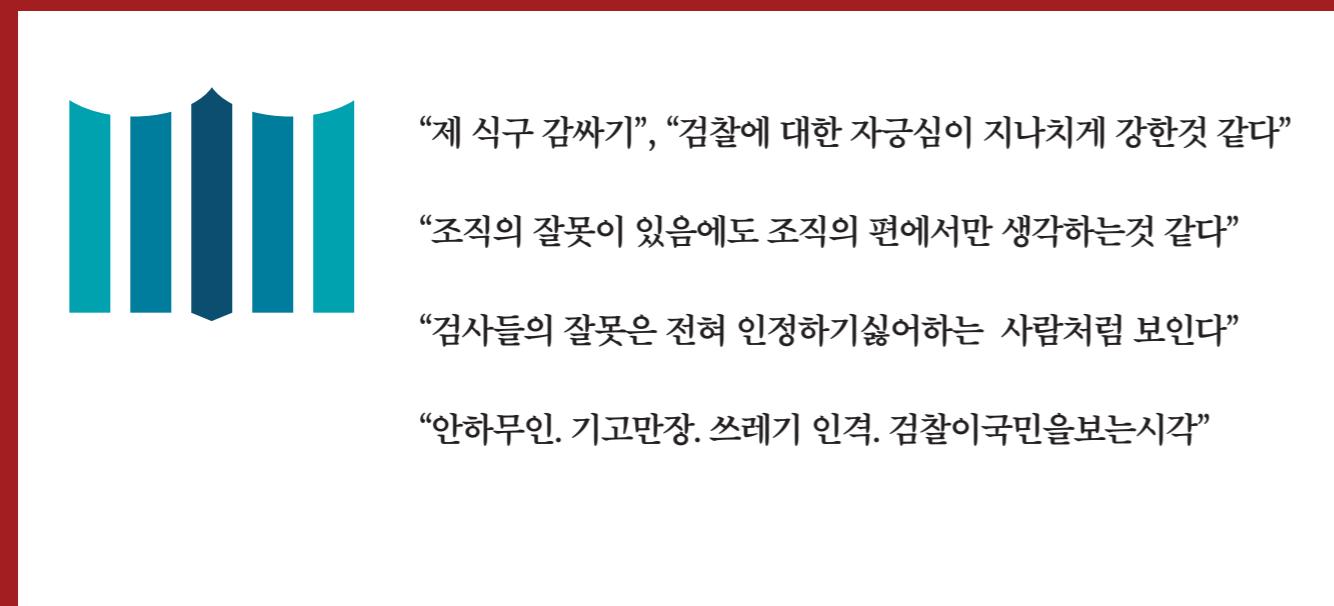
“내로남불”, “뻔뻔함의 최고봉”, “발뺌”, “숨기는것 같은 느낌” “법꾸라지”

“뻔질뻔질”,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보고 본인의 미성숙한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려는 얼굴과 몸에서 느껴지는 불성실.

굉장히 사람을 멸시하고,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

본인의 권리 위치를 거들먹거리며 예의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음.

검사 시절의 고압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 안하무인하는 자세가 지극히 싸가지 없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임, 탄핵0순위임.

기고만장한 건방진 태도이며 윤석열 아니면 지가 장관 부스러기도 아님.

너무 대충대충 말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크다.

안하무인, 인격파탄, 주먹을 부르는 태도,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시각, 눈뜨고 볼수가 없다.

가발 쓴 권력의 개강아지, 이번 일로 검찰의 힘은 한없이 약해질것임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는 미성숙한 사람

질문을 받는 자리인만큼 어떤 답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임을 무시하는 사람.

건방진 태도로 일관하며 말꼬리를 잡으며 교묘하게 본질을 피해가는 듯 보인다.

짜증난다. 저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듣고싶은 말만 듣고자함. 싸울 준비가 되어있음.

답변을 하기싫어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구나....인성이 나쁘구나.....본인의 예의없음은 생각안하고 남의 예의 없음에 굉장히 기분나빠하는 모습이 후지다.

정말 왕싸가지의 국가대표선수이다.

건방지고 싸가지없어서 보기 힘들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약간 엉뚱한 부분에 핀트를 잡고 늘어지는게 지능이 부족해보이며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례한 면이 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와 생각이 자기 위주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 옳다.
왜 장관을 하죠? 공인으로써 자격 없습니다. 가정교육까지 의심스럽습니다.

싸가지가없어도 너무 없다 너무 분수를 모르는것 같고 한마디로 기고만장하는것같다.
건방지고 싸가지없다. 법무장관이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만하고 재수없다.

거만하고 역겹고 혐오스럽고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탄핵감이다.
저자는 핸드폰비번도 안까는 범죄자다.

미쳤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 인사의 이미지**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개싸가지, 개쓰레기, 강아지,
재수없다, 불여시같은 사람, 멍청이,
줄라 싸가지가 없다, 범죄자,
양아치, 가발 쓴 권력의 강아지,
미치광이 같다, 욕하고 싶다, 인성이 거의 없다,
저 입을 한대 때려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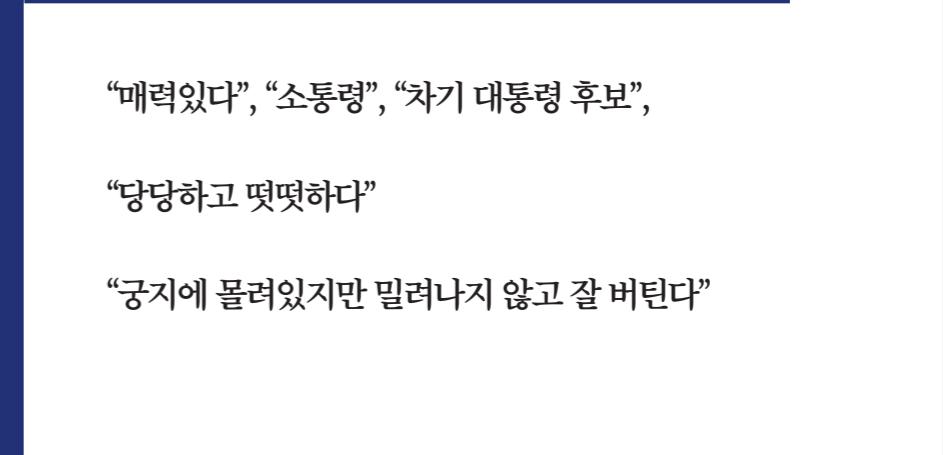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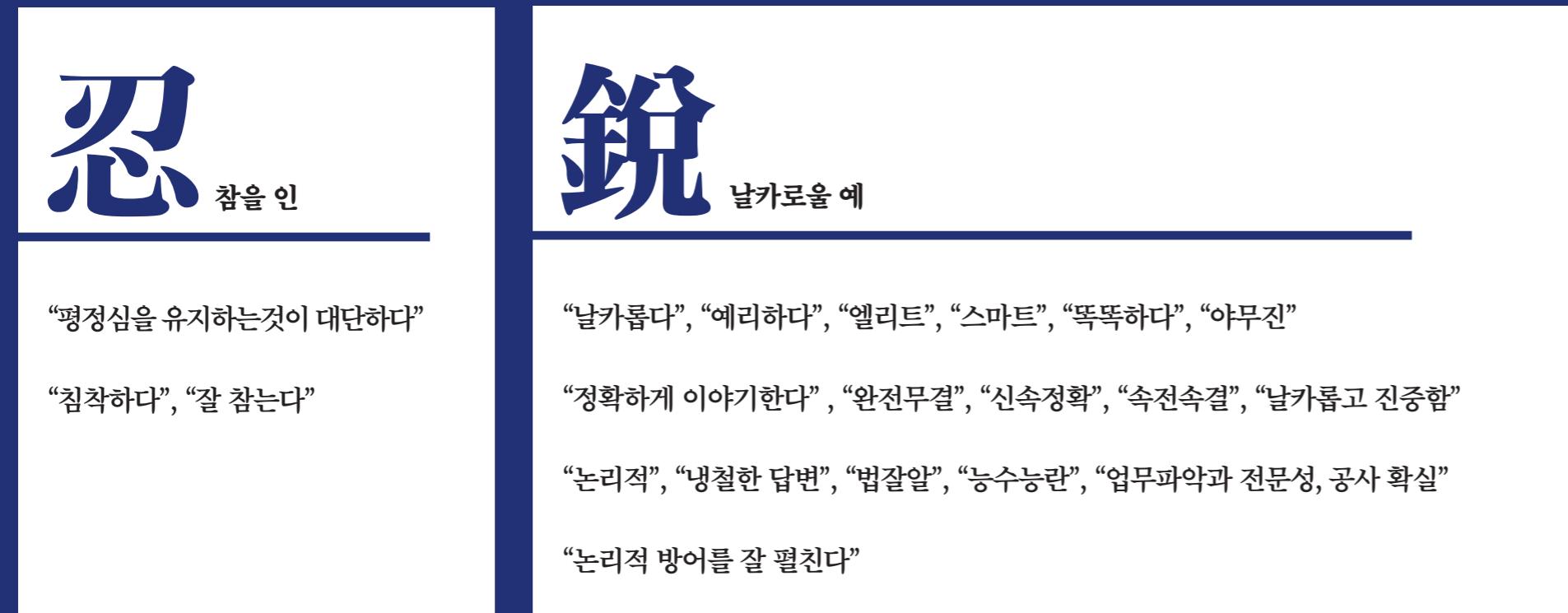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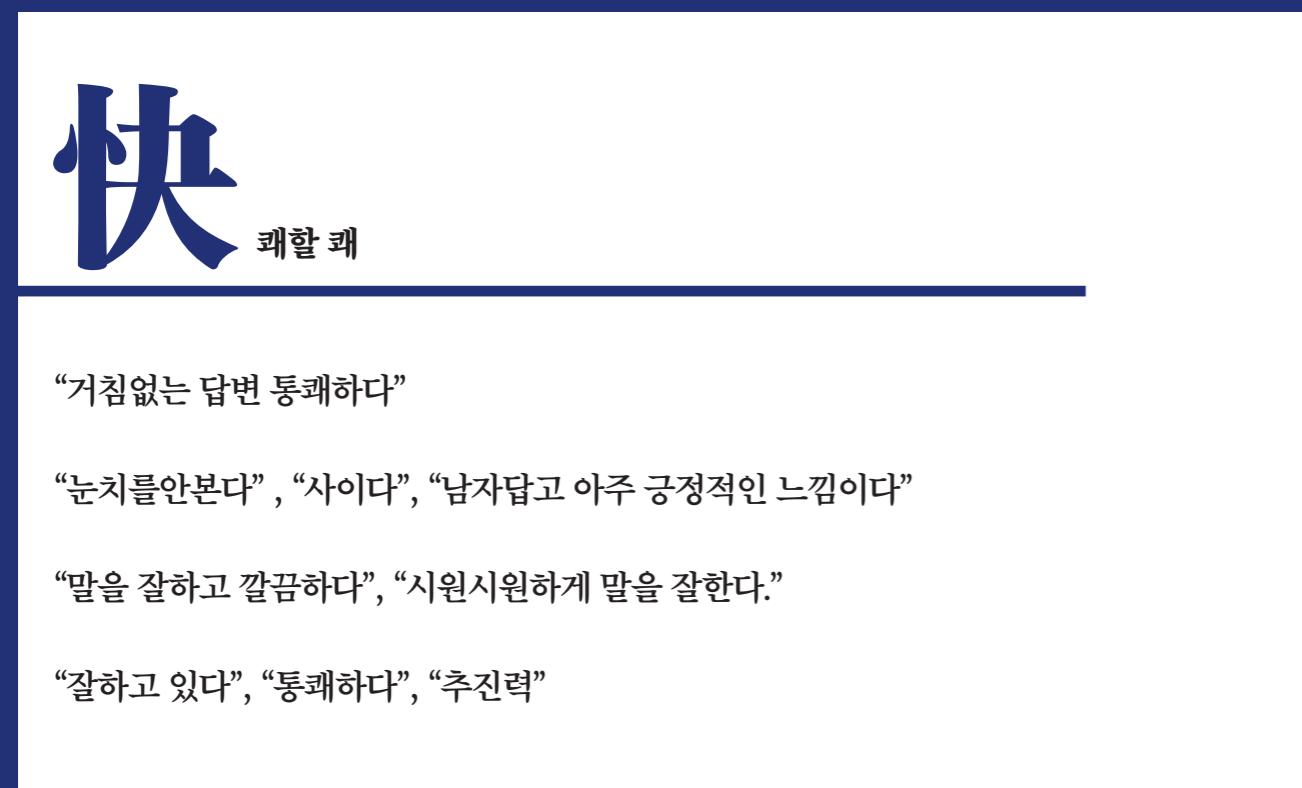
...

* 자극적 단어들은 순화하여 보여드립니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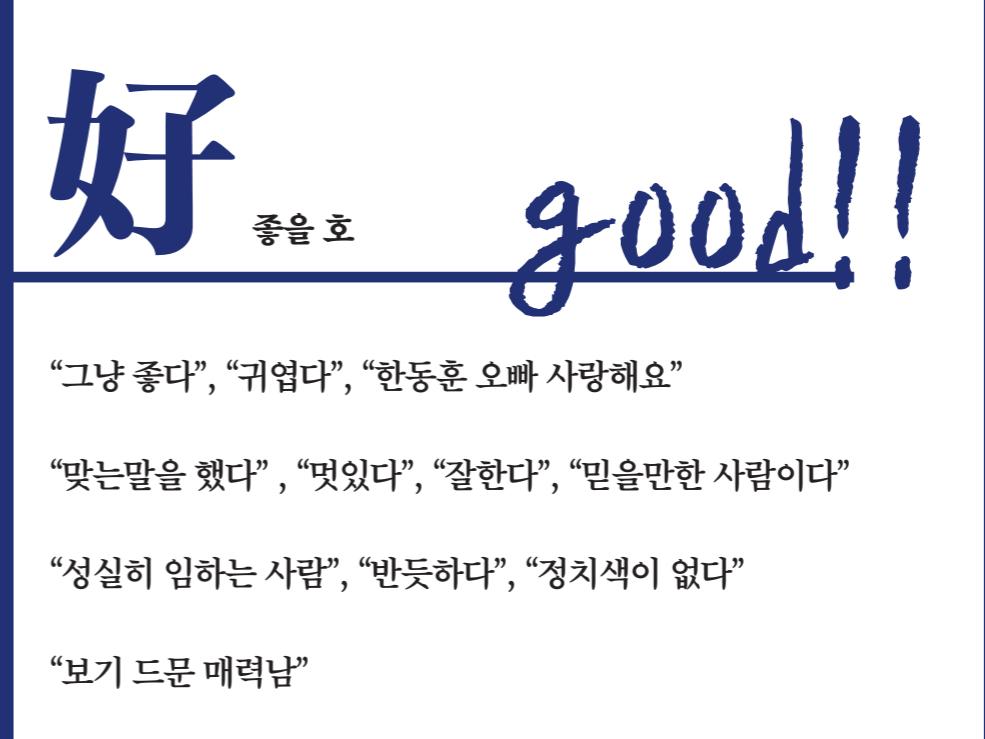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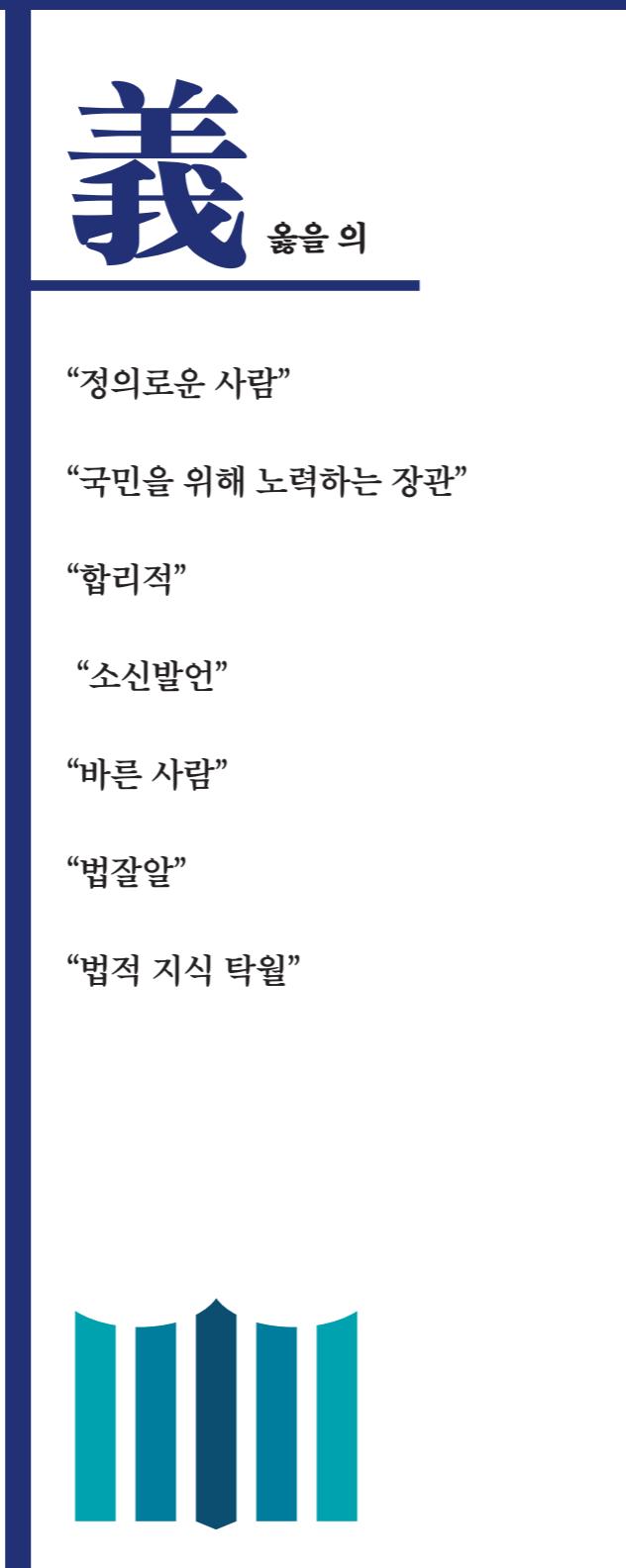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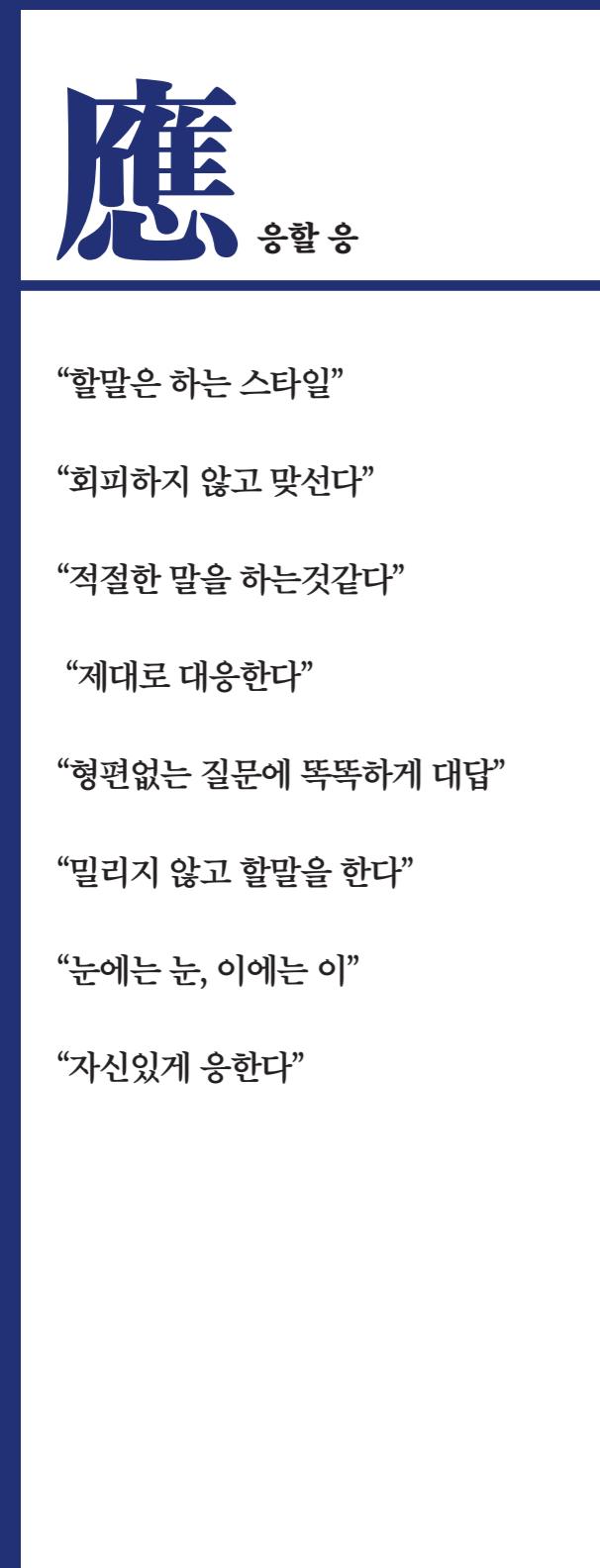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정부 인사의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연상

Q. 영상을 보신 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국민은 선거때외에는 아주 무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속시원하다.

국회를 향한 거침없이 발언하는 모습.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같지도 않은 인신공격에는

과거 황산성 장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짹다리 자세로 대답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너무 공손하게 대답하는것 같다.

잘하고있다 잘하고있다 더해야한다.

한동훈 장관님이 막말을하고 그러시지는 않지만

최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님 멋지고 실력있는 분으로 지지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논리적 방어를 잘 펼친다.

똑똑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강압적인 태도로 질의하는 권력자에게 굴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해보인다.

자신감있는 태도가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공사 구분 없이 따지고 이야기하는것에 대해

적절하게 끊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때 불편감을 표현했다.

희대의 졸속통과된 검수완박의 무력화로 검찰수사를 받게되어

분노한 피의자에 잘 대응하고 있다.

무식하고 형편없는 질문자에 대해 똑똑하고 올바른 답변 태도 느낌.

자신감 넘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회피하지 않고 맞선다는 느낌.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든다.

차기에 한자리 할것같다.

www.flowerresearch.com

제5차 정례여론조사 ARS + WEB 보고서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202209_02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여론조사